

서론: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 인문학적 접근

Introduction: Environmental
Humanities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저자 | 데이비드 히긴스, 테스 소머벨, 나이젤 클락
(David Higgins, Tess Somervell, Nigel Clark)
번역 | 손정아 (국민대 미술학과)

▶ 이 논문 번역은 [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DBpia



아카루트

서론: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 인문학적 접근¹⁾ (Introduction: Environmental Humanities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데이비드 히긴스, 테스 소머벨, 나이젤 클락
(David Higgins, Tess Somervell, Nigel Clark)

*번역: 손정아 (국민대 미술학과)

1. 기후 위기 속 환경 인문학

학제간 형성으로서의 환경 인문학의 발전은 생태적, 행성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이 위기의 규모와 가속도는 환경 인문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중대한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훌륭한 학문의 형성에는 시간이 들고,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해결책을 고안하기보다는 비판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렇다면, 인문학 연구자들은 “지구를 구하기 위한 12년”의 시간이 남았다는 널리 알려진 주장과 같은 이러한 사태의 긴급성을 어떻게 직시하고 있는가?(Friends of the Earth 2018) 한가지 답은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 전체화되는 서사를 분석하고, 미묘하게 만들고, 그에 도전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이 다가왔다는 식의 생각(Deadline-ism)”은 그 종말론적 의미와 함께 설득력 있게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의되어 왔다.(Hulme 2020) 카일 화이트(Kyle Whyte)가 제안하였듯이, “긴급성(urgency)”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원주민들이 이미 겪고 있는 환경 불평등을 잠재적으로 차단하고, “해결책”의 상의하달식 구현을 통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위협하기 때문이다.(Whyte 2020) 이 후자의 용어는 기후 변화를 전문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급

1) Higgins, David; Somervell, Tess; Clark, Nigel. 2020. “Introduction: Environmental Humanities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Humanities* 9, no. 3: 94.
<https://doi.org/10.3390/h9030094>

한 또는 일련의 문제로 간주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테크노크라트적(technocratic) 접근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인문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라 함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해결책인가?” “해결책이 항상 바람직한가?” 또는 “인간이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이런 혼란에 빠뜨린 사고방식의 징후인가?”와 같은 아마도 대중적이지 않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특집호에 실린 예론 오멘(Jeroen Oomen)의 논문이 보여주듯이, 지구공학과 같은 뻔한 해결책은 종종 윤리적, 정치적 복잡성에는 무관심한 방식으로 제안된다.

이 특집호를 위한 논문을 모집할 때, 우리는 날씨(weather)보다 더 노골적으로 “기후와 기후 변화는 특정 서사, 단어, 이미지, 대상, 상징과 같은 문화적 형식을 통해 피할 수 없이 매개되고 재매개된다”고 제안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기후 변화의 핵심 논쟁점과 뼈대는 기후 변화가 과학적인만큼 문화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과학이 문화의 일부라고 제안하거나, 기후 과학자들의 중요한 작업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를 인문학 연구자들을 위한,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기회로 다루고자 하였다.

기후 변화가 단지 허구일 뿐이라는 개념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로서의 기후 변화가 우리의 주의를 끌 수 있을까? 어떻게 기후 변화를 정치적이고, 문화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는 것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후 변화의 매개를 이해하는 것이 환경적 영향의 외면할 수 없는 사실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특집호에 줄리 도일(Julie Doyle)의 후기와 함께 실린 일곱 개의 논문은 인류세 시기의 인문학의 가치를 위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고,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답변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에 있어 핵심적 사안은 이 특집호를 위한 논문을 모집할 때 이미 밝혔듯이, “인간의 힘을 과장할 뿐 아니라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야기하는 상당한 불평등을 호도하는 단일한 종, 폭넓은 행위자를 제안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환경 인문학은 기후 변화를 사회적-정치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고, 잠재적 “해결책”의 개념과 의미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후 변화를 매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관심 없는 행동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기후 이주자(climate migrants)”의 서구적 재현은 벤 드 브루엔(Ben De Bruyn)이 논의하였듯이, 회의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프레임되었고, 이러한 틀 안에서의 인종적, 식민적, 추출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갖는 역할의 문화, 정치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Yusoff 2018) 동시에 환경 인문학 자체는 인종 차별과 유럽 중심적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지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지속해야 할 과제이다.

이 특집호는 기후 변화가 어떻게 매개되는지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라는 주제가 인간과 비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자들의 연구 대상은 기후 데이터의 대중적인 시각화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도시 국가, 미래의 해수면 상승의 회화적·문자적 재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각의 저자들은 기후 변화가 어떻게 매개되는지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아마도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방법론들이다. 이 특집호는 각기 다른 학문적 관점을 제공하지만 학제간 논문을 모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각각의 논문들은 통섭학적 접근의 가치를 드러낸다. 한 예를 살펴보자면, 환경적 변화의 목격자이자 상징

으로서의 투아타라(tuatara)에 관한 안나 보즈웰(Anna Boswell)의 논문은 인류학, 다종민족지(multispecies ethnography), 동물학, 보존학, 환경사를 포함하는 분야의 개념과 방법론을 통해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의 생태, 식민지 역사, 원주민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설득력 있는 논의를 개진한다. 투아타라의 중요성과 이와 연계된 인식론은 협소한 관점을 통해서 성취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는 실제로 “실제-세상”의 완화 및 적응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는 테크노크라틱적 상의하달식 해결책에 대해 어떤 대안적 방식을 제공하는가? 리비 로빈(Libby Robin)은 “환경 인문학은 기후 변화와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문제 및 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기후 변화 환경이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루는 방식으로 그 초점을 전환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Robin 2018, p. 2) 더욱 도발적으로, 그렉 가라드(Greg Garrard)는 “인문학이라는 학문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장관들이 탐탁치않게 여긴다”고 하였다.(Garrard 2020, p. 1)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과학자 및 정책 입안자들과 타협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주변부적 위치를 확인하게 될 뿐이다. 로빈과 가라드와는 대조적으로, 환경 인문학에 관한 최근의 소개는 이 분야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시사한다.(Emmett and Nye 2017, p. 2) 인문학 학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그들의 주의력을 복잡성, 창조성, 미묘함에 활용하여 상의하달식이 아닌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데일 제미슨(Dale Jamieson) 말했듯이, “우리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해결책이라는 프로메테우스적 꿈을 버리고 대신 새로운 세계가 주목하는 와중에 일시적인 승리와 지역적 해결책이라는 엉망인 세상과 함께 해야 한다.”(Jamieson 2014, p. 10) 예술과 인문학은 환경 문제를 둘러싼 혁신적인 대중적 참여와 공동 창작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특화되어 있다. 로저먼드 포터스(Rosamund Portus)와 클레어 맥긴(Claire McGinn)은 논문에서 벌의 개체수 감소를 탐색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워크숍을 묘사하고 분석하여, “집단적 상상하기(collective imagining)”를 포함하는 기후 대화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사례를 제시한다.

이제 우리는 환경 인문학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1) 기후 변화에 대한 그들의 창조적 대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중, 특히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 (2) 부분적으로 문제 및 해결책이 적절한 문화적 맥락 안에 위치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학문과의 협력(Hole and Brenna 2018; Kitch 2017; Little 2017), (3) 학생들에게 환경적 재현과 참여에 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특히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여전히 패권적인 탄소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가르치는 것(Sultzbach 2019), (4) 위기 그 자체의 수사학을 포함하여 환경적 변화를 둘러싼 종말론과 구원 같은 거대 서사를 비판하고 미묘하게 만드는 연구를 출판하는 것이다. 이 서론에서는 어떻게 역사적, 서사적으로 기후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그 마지막 목적을 성취하는지 탐구한다. 인류세는 때때로 행성적 역사 안에서 단절로 표현되기도 하며, 아마 그렇다고 보지만, 기후 변화는 다른 시간적 규모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이 보여주듯이, 환경 인문학은 우리가 보다 유연한 시공간적 관점을 배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결국 기후 변화의 복잡한 뒤얽힘, 로컬과 글로벌, 생태학과 지질학, 과거와 미래, 인간과 비인간을 반영하는 더욱 미묘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기후 시간성

기후 변화를 둘러싼 이해와 소통, 대응은 공간적, 시간적이라는 규모의 과제를 수반한다. 기후 변화는 이 두 가지 차원 모두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지역적으로나 현재에도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지각은 상상력, 기억, 우리에게 허용된 지적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학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독특하게 분석하고, 시공간적 현상으로서의 기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호에 실린 논문들은 특히 환경 인문학이 기후 변화가 제기하는 세 가지 주요한 시간적 도전에 직면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보여준다.

- (1) 우리는 어떻게 행성 지구 역사의 거대한 연대표와 가까운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기후 변화 속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가?
- (2) 최근의 역사학과 지리학은 어떻게 전례 없는 현재의 상황에 유용하게 수용될 수 있는가?
- (3) 현재와의 연속성과 현재와의 차이 모두에 의해 정의되는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상상해야만 하는가?

기후 변화는 “심원한 시간(deep time)”을 고려함과 동시에 보다 짧은 기간에도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질렌 우드(Gillen D'Arcy Wood)에 따르면, 기후 변화는 “인간의 시간 척도에 따라 심하게 압축된 지질학적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Wood 2018, p.12) 심원한 시간을 통한 기후 변화의 이해와 긴급성과 함께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전례 없는 현대적 현상으로서의 상황의 감각 사이를 조화시키고, 최소한 그 사이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긴 시간에서 짧은 시간으로, 느린 시간에서 빠른 시간으로라는 시간적 관점에 있어 혼란스러운 전환이 필요하다. 보즈웰이 주장하였듯이, 현재의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그 자신의 오랜 수명과 연계되어 “불가사의한 시간 척도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투아타라와 같이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시간성의 범위들을 살필 것”을 요구한다.(Boswell 2020, p. 9)

투아타라는 우리가 매우 다양한 시간 척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하나의 자원이지만, 우드가 설명하였듯이, “자연 재해”또한 심원한 시간의 “무서운 압축(terrifying compression)”을 포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레미 데이비스(Jeremy Davies)는 “화산폭발이나 지진을 겪으면서 사는 것은 개인적 경험으로 접근 가능한 차원의 시간으로 압축된 행성의 활동이라는 지질학적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Davies 2019, p. 5) 우드는 그의 논문에서 이러한 두 시간적 척도를 염두에 두기 위해 신격변론(new catastrophism)의 구축을 옹호한다. 이 역사기록학은 “격변 없는 격변설”로 탈문맥화하는 동시대의 재난 구성(framing)에 필요한 수정책을 제공하면서 긴 시간에 짧은 기간 간간히 끼어드는, 보다 시각적인 선언 혹은 보다 긴 지구물리학적 과정의 표현으로서 시간을 구조화한다.(Wood 2019, pp.2-3)

그러나 기후 변화의 시공간적 규모의 유용한 개념에 있어 두려움(terror)은 꼭 필요한가? 앤 파섹(Anne Pasek)이 “하키 스틱 그래프(hockey stick graph, 긴 시간의 행성적 관점을

속도와 결합시켜 최근의 기후 변화의 긴급성을 암시한 가장 잘 알려진 시도)”를 분석하며 지적하였듯이, “송고, 하이퍼객체(hyperobject), 낭만주의, 또는 공포와 같이 스칼라(scalar)와 단절된 개념은 보통 책임감을 고양하는데 있어 실패한다.”(Pasek 2019, p. 5) 만약 심원한 시간의 심연과 기후 변화를 통한 인간 시간 척도의 압축이 이미 공포스럽다면, 최소한의 목표가 “책임감을 고양시키는 것”이라면, 지진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재난을 이러한 압축의 표준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어 너무 지나친 수준의 공포인가? 한 가지 가능한 대안은 심원한 시간의 과정이 가시화되는 보다 보통의 방식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룡보다 오래된 종으로 “종종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투아타라에 관한 보즈웰의 관찰은 화산폭발보다 다루기 쉬운 규모의 재앙이라는 축소된 크기의 코미디-호러이다.(Boswell 2020, p. 13)

우드, 파섹, 보즈웰이 논의하였듯이, 보다 광범위한 시간 척도의 기후 변화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응들을 분석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 재현과 소통, 재난 경영을 포함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현존하는 수 많은 전략 문제들의 규모와 결합 모두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단계이다. 항상 그렇듯이, 행동으로 향하는 인식 이후의 단계는 덜 명확하다. 반면, 한 시간에 한 번 숨을 쉬는 투아타라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천천히 가라”는 영감을 줄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보즈웰이 살펴보았듯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능력은 투아타라에 의해 수 백만년에 걸쳐 습득되었지만 투아타라와 인간 모두에게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다.(Boswell 2020, p. 12)

심원한 시간 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 인문학적 접근은 우리를 최근의 역사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는 인간 이전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로의 전환이 아니다. “심원한 시간”의 무정형한 영역은 미래를 포함한 인간 존재의 수천 년의 시간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우드는 심원한 시간의 맥락에서 인간을 “간빙기의 존재(interglacial beings)”로 본다.(Wood 2019, p. 12) 기후 변화에 대한 “심원한 시간”과 “역사적” 접근의 차이는 아미타브 고시(Amitav Ghosh)의 두 인용구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번 호의 다른 논문들에서도 사용되었다. 우드는 기후 변화에 관한 고시의 강의 선집인 『The Great Derangement』(2016)을 인용하여 심원한 시간의 깊이 안에서 기후 변화를 관련 짓는다. “오늘날의 기후 변화 사건들은 … 시간에 따른 인간 행동의 전체성을 대표한다.”(Ghosh 2016, p. 115) 한편, 드 브루옌은 고시의 소설 『Gun Island』(2019)를 인용하여 소빙하기의 맥락에서 기후 변화를 다루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끈 것은 17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Ghosh 2019, p. 137) 만약 심원한 시간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가 기후 변화에 의해 주어진 개념적 요구들을 붙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홀로세의 시작 이후 문화적, 환경사적 연구는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바로 그 개념적 틀의 기원을 탐구한다.

역사적 접근방식은 계보의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물리적·사회적 과정, 문화적 매개, 제안된 해결책과 협력하는 물질적-담론적 현상으로서의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역사적 태도, 실천, 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계보적 접근은 시대착오와 현재주의에 대한 비난을 쉽게 자초할 수 있는 반면에 충분히 미묘한 역사주의는 전자를 배제시킬 수 있지만 후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 있어 더 까다로운 문제이다. 린 헌트(Lynn Hunt)가 신랄하게 표명한 것과 같이 이는 환원적인 “동일성의 연구(study of sameness)”로 보여질 위험이 있다.(Hunt 2002) 역사에 초점을 맞춘 환경 인문학의 아마도 가장 생산적인 경로는 『Victorian Studies』 저널의 2016년도 특집호에서 이론화된 방법론인 “전략적 현재주의(strategic presentism)”를 통해서일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현재주의는 도덕적 교

훈이나 “공감가능성(relatability)”을 위해 과거를 채굴하지 않고, “과거를 연속적인 시간에 의한 현재로부터 분리된 지식의 대상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보도록, 그리고 “현재를 바꾸기 위해 과거를 비판적으로 생각… [그리고]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Coombs and Coriale 2016, p. 88)

계보를 추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발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당연시되거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대응의 전제를 발견하도록 허락한다. 예를 들어, 오멘은 “편협한 시각”을 “기후 공학을 고려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규정한다. 반직관적으로, 이러한 편협한 시각은 20세기 중반 출현한 “전지구적 인식론(global epistemology)”에 기반한다.(Oomen 2019, p. 7) 이러한 인식론적 토대를 지각하는 것은 전체론적 세계관의 당연함과 함께 “기후의 전지구적 평균에 대한 대화를 특권화”하는 방법의 잠재적인 결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Oomen 2019, p. 4)

클락은 훨씬 더 과거로 가 홀로세 중엽인 기원전 3-4천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한 현대적 반응의 광범위한 범위에 있어 놀라운 계보적 주장을 펼친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가 이주민을 디지털 감시하거나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떠올릴 때, “여전히 최초의 관료주의 국가적 논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제안하는데, 이 글 자체는 기후 격변에 대한 간접적인 대응으로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클락은 “재작업된 고대의 물질적 기반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문화적, 인지적 과정의 “토대”를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Clark 2020, p. 3) 그러나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관점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현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모델을 찾기 위해 과거를 살펴볼 수 있다. 역사적 연속성을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락은 점토 속 벽과 단어의 물질적 기원을 명심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표류를 “비체현되고, 비물질화된 경로”로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Clark 2020, p. 13) 그렇다면 역사적 모델을 살펴보는 것은 환경 인문학이 기후 변화에 의해 제기되는 또 다른 시간적 도전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곧 현재와의 차이와 연속성에 의해 정의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앞서 생각하는 것은 기후 변화의 최악의 결과를 예측하고 잠재적으로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미래의 기온 변화,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측할 수 있지만, 기후 변화가 향후 몇 년 동안 사회적, 문화적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상상력의 도전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과거의 배기가스와 다른 행동과 연결시키는 데 상상력이 필요한 것처럼 현재 우리의 행동과 전망된 미래의 여러 행동 사이에 인과적 연관성을 만들고 있다.

역사적 선례는 우리가 미래를 모델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창조적인 서사 형식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드 브루옌은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의 이동(displacement)에 대해 추측하기 위해 기후-과학 소설(cli-fi novel)이 유럽의 최근 이주 “위기”를 반영하였는지 탐구한다. 그는 이 소설들이 어떻게 “종말론적 상상력을 다시 생각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문학적인 분석이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또는 희망적 전망이 기후 변화를 다루는 바람직한 도구인지에 대한 최근의 논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De Bruyn 2020, p. 4) 드 브루옌은 미래의 기후 이동(climate migration)에 관한 몇몇 소설의 다양한 묘사와 현재를 위한 그 윤리적 함의들을 비교함으로써, 가라드가 최근 주

장한 바와 같이 미래를 추측할 때 명심해야 할 필수적이고, 기후-과학 소설 자체가 차단하는 경향이 있는 지점을 강조한다.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알리는 두 현재의 일대일 상호주의라는 환상... 역사와 미래주의가 피할 수 없이 설명되는 현실을 대강 훑어보는 디스토피아.(Garrard 2020, pp. 2-3)”미래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과거가 어땠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처럼 역사적 현재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시각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단 하나의 '진정한' 서사를 발견할 가망이 없더라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인지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기후 변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 과제다. 파섹은 하키 스틱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에드 호킨스(Ed Hawkins)의 기후 나선 애니메이션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역사적 모멘텀”의 운동적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기후 나선 애니메이션은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로의 추세가 지속됨을 암시한다.(Pasek 2019, p. 9)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해 사용되는 현재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대부분의 도표에서 시각화된 것처럼 과거와 미래 사이의 분리는 “정의의 공간을 열어 놓고” 현재를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경첩”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유용한 수사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추진력을 잃는 것은 긴급성을 상실할 위험도 가지고 있다.(Callaway 2014, pp. 13-14)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s)의 이용에 관한 포터스와 맥긴의 연구는 사진이 “시간적 과거성의 강력한 감각(a powerful sense of temporal past-ness)”을 전달하여 현재에 발 디딜 곳을 잃는 것을 논의한다.(Portus and McGinn 2019, p. 1) 우드가 그의 논문에서 다루었듯이, 기후 센트럴(Climate Central)에 의해 만들어진 미래의 이미지는 미래의 변화 서사를 창조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의 병치를 활용하고자 시도하지만 그 사이에서 중요한 혼돈을 놓친다. 대조적으로 포터스와 맥긴의 사운드스케이프 워크숍이 만들어낸 사운드-작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의 지형을 그리고, “우리가 있는 궤적”을 환기시킬 수 있었던 나선형 gif와 같이 지속적인 특성을 공유한다.(Portus and McGinn 2019, p. 9)

이번 호에 실린 일곱 개의 논문은 모두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 있게 연결하는 미묘한 역사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 인문학은 인간의 시간 속 심원한 시간의 압축, 역사적 계보, 미래의 전망을 위한 상징을 포함한 새로운 서사의 발견과 구축, 그리고 기존의 서사에 대한 분석과 비평 등을 통해 그들이 생산하는 정서적 반응과 매개의 윤리적, 지성적 의미를 밝혀내는 관점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기후 서사

기후 변화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인간과 행성이라는 두 규모 사이를 유동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면,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인간의 영향이 만들어내는 신호(signal)와 기후 시스템 자체의 끊임없는 이동과 맥동의 배경 소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듯이, “세부적인 고생물 기록은 지구가 결코 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거의 모든 공간적, 시간적 규모에 있어 가변성이 풍부하다.”(Steffen et al. 2004, p. 295) 그러나 지구 자체의 변덕스러운 기후라는 환경은 최근의 기후 기록에서 인간과 비인간적인 영향의 지저분한 뒤엉킴 이상을 만들어낸다. 또한, 이는 우리가 현재의 곤경을 이해하려고 도달하는 바로 그 언어,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상징들이

기후와 다른 지구 과정(Earth process)의 가변성 속에서 이미 살아온 삶의 흔적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드는 오늘날 고조되고 있는 기후 재앙을 더 큰 재앙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망상적인”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때, 자-의식적으로 이미 행성의 격변과 이를 둘러싼 이전의 서사들을 찾아낸다. 그는 “1840년대 위기의 10년”에 천착하여 저명한 사회학자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와 그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수학자 조셉 아데마르(Joseph Adh mar)의 연구를 살펴본다.(Wood 2019, p. 2) 엥겔스는 산업적으로 오염된 대기의 최악의 상태에 주목한 반면, 아데마르는 빙하의 대량 용해가 주기적으로 행성적 규모의 “획기적인” 해수면 상승을 유발한다는 선구적 이론을 제시했다. 우드는 두 사상가가 대재앙의 매우 다른 윤곽을 살펴보았지만, 모두 물리적인 지구가 격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축적된 증거에서 출현한 과학적 대재앙의 동시대적 언어를 계승하고 재작업하였다고 주장한다.

연속적인 기후 변동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하기 보다는, 공포와 운명론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관례적으로 비판 받아야 한다. 우드가 한 세기 반 동안의 지구의 변동성(volatility)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조명한 반면, 클락은 우리가 소통하는 바로 그 수단에 있는 기후의 가변성(variability)의 어둡고 깊은 각인을 고찰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약 오천 년 전 전지구적 기후 변화의 중요한 순간의 영향에 주목하여 그는 문자 언어의 출현과 숫자의 이용이 암시하는 변화인 고고학적, 고기후적 증거를 재조명한다. 만약 우리가 지금 기후 서사를 쓰고, 기후 영향을 열거하고, 그리고 행성적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바로 그 양식들이 기후 이행(transition)과 연관되어 있다면, 변화하는 기후를 통한, 또는 변화하는 기후를 통해 매개되는 기후 변화의 조정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해력과 산술능력 자체는 세상이 인간에게 던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인간의 습성에 있어 늦게 추가된 것들이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그의 유명한 1936년 에세이 「이야기꾼(The Storyteller)」에서 전통적인 서술 형식에 내재된 집단적 지식을 행성의 거대한 시간적 움직임과 주기성 안의 “작고, 연약한 인간 신체”의 몰입과 연결시킨다.(Benjamin [1955] 2007, p. 84) “누군가는 반드시 수천 세기 동안 지구의 표면에서 일어난 변화에 버금가는 리듬 안에서 발생하는 서사적 형식의 변형을 상상해야만 한다.”(Benjamin [1955] 2007, p. 88) 민족지적 증거는 우리가 이를 문자 그대로 읽도록 하는데, 왜냐하면 수 천년에 걸쳐 정보를 전달하는 특정 지역의 원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연구(Indigenous studies) 학자인 마샤 랭턴(Marcia Langton)에 따르면, 호주 원주민의 경우 “약 칠천년 전 대양의 웅기, 이만년 전 화산 분출, 그리고 아주 먼 옛날의 기후와 풍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Langton 2018, p. 84) 만약 그러한 이야기들이 청중들에게 지구의 변화 가능성(changeability)을 상기시킨다면, 이는 종종 불확실한 우주 속에서 사는 조언과 통찰의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구를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지구와 가깝게 모으기 시작하면, 그들의 상호적 암시에 분명한 한계는 없다. 인간이 대체로 수렵채집가였던 수십만 년 동안, 사냥꾼들은 동물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정한 사변적 이야기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호의 모음으로서 그 환경을 읽는 법을 배웠다.(Liebenberg 1990, p. 29) 우리는 손을 자유롭게 하고 얼굴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영장류의 직립보행이라는 진화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호미닌(hominin) 스토리텔링의 전언어학적인 기원으로 간주 되어온 몸짓(mime) 제스처를 가능하게 했다.(McBride 2014) 결과적으로, 인간과 그 직계 조상인 호미닌은 감각 기관이

“앞쪽” 끝에 집중된 훨씬 더 고대의 동물적 신체를 물려받는다. 사회학자 브로니슬로 스저스키(Bronislaw Szerszynski)는 자발적 이동성 또는 보행 능력과 “두화(cephalization)”가 결합하여 동물이 시간과 공간의 자기-감각을 위한 기본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였다.(Szerszynski 2016)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하고(head out)” 그리고 “집으로 향할(head home)” 수 있는 것이 이야기된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동물의 협상 능력과 그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 넓은 범위의 진화라는 맥락에서 우리 자신의 스토리텔링 요령을 발견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문화적-언어적 표현의 전제조건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조직과 새로운 형식으로 삶을 유혹하고, 밀치고, 충격을 주는 행성적 사건의 위대한 연속에 동참한다. 이러한 관점은 또한 어떻게 다른 진화적 계통, 다른 신체 방침 및 대안적 감각 배열이 역동적인 지구를 경험하게 하는 여러 방식들을 가능하게 하는지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종종 찬양 받지 못한 양(unsung sheep)을 그 예로 드는 과학철학자 뱅시안 데스프레(Vinciane Despret)와 생태학자 미셸 뢰레(Michel Meuret)는 지구의 수용력을 감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는 그들의 모든 다양성(multiplicity) 속 살아 있는 존재들을 제안한다. 데스프레와 뢰레가 논의하였듯이, “양떼의 기억(The memory of the flock)”은 “그 존재의 일부를 땅에 내어준다. 입, 눈, 내장, 신체, 다리, 발의 구체적인 기억으로 양떼는 땅, 길, 덩굴, 샘, 돌이 존재하는 길을 펼쳐나간다.”(Despret and Meuret 2016, p. 33)

같은 논리에 의해, 파멸적 변화를 향해 나아가거나 이를 겪고 있는 행성은 이러한 유기적인 움직임, 감지, 기억에 있어 심각하게 위태롭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기후 교란(climate derangement)”은 인간 행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Wood 2019, p. 4; Pasek 2019, p. 6 참고) 기후 변화가 가속되는 조건 하에, 포터스와 맥킨이 관찰하였듯이, 식물의 개화 시기는 벌과 다른 꽃가루 매개자들이 반응하는 신호를 방해하면서 변한다.(Portus and McGinn 2019, p. 3) 이는 결과적으로 인간 간 소통이라고 하는 동시대 대중 매체에 표현된 벌의 운명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촉발시킨 식물군과 곤충 사이의 정교하게 설정된 매개의 혼란이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중력을 고려할 때, 다른 유기체들이 기후의 신호에 반응하고 나타내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인간이라는 종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즈웰이 논의한 투아타라의 경우, 예외적으로 느린 호흡률과 수 세기까지 이어지는 수명 뿐 아니라, “인간의 감각 인식을 벗어난 기후 영역의 ”흥미로운 목격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제3의 눈”을 통해 햇빛을 감지할 수 있다.(Boswell 2020, p. 9) 보즈웰은 서구의 과학자들이 도마뱀류의 독특한 특성을 완전히 평가하기 훨씬 전에, 마오리족(Māori)이 고대 지혜의 소유자로서 투아타라를 존경했고 그것을 신성한 공간의 수호자로 선택했음을 상기시킨다.

포터스와 맥킨의 꿀벌처럼, 보즈웰의 투아타라는 잠재적으로 인간의 시선에서 행성적 변화를 횡단하는 전망에 이르는 통로 역할을 한다.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그 개별성과 특수성을 가진 모든 생명체를 지구 스스로가 감지하고 그 고유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중요한 매체라고도 볼 수도 있다. 마오리족과 투아타라의 유대감은 다른 유기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원주민이나 한 장소에 오랜 시간 거주하는 자들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Vivieros de Castro 2004) 지리학자 아담 보벳(Adam Bobette)은 다른 형태의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밝힐 뿐 아니라, 다른 유기적 관점 사이에서 순환하는 능력이 번덕스러운 지구의 과정과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유연하고 실험적인 인

프라구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Bobbette 2019, pp. 187-90)

보벳이 암시하듯이, 만약 다른 신체 방침과 감각적 집합체 사이에서 상상력을 통해 움직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매우 가변적인 기후와 이에 따른 즉흥적인 분투에 있어서 인간 행위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환경 격변에 수반되는 두려움과 슬픔을 안고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과학 연구자들이 “자연” 과학(hard science)의 엄격한 분석적 요구와 생물 형태 또는 지형의 상실에 대해 느끼는 비통함 사이를 조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경험되는 긴장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Head and Harada 2017; Gordon et al. 2019) 우리의 감각 등록기(sensory register)를 확장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기후 변화의 파괴를 창조적, 의례적, 집단적 지지의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차원의 노출 위협을 감수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 Benjamin, Walter. 2007. *Illuminations*. New York: Schocken Books. First published 1955.
- Bobbette, Adam. 2019. Cosmological Reason on a Volcano. In *Political Geology: Active Stratigraphies and the Making of Life*. Edited by Adam Bobbette and Amy Donovan.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169-99.
- Boswell, Anna. 2020. Climates of Change: A Tuatara's-Eye View. *Humanities* 9: 38.
- Callaway, Elizabeth. 2014. A Space for Justice: Messianic Time in the Graph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Humanities* 5: 13-33.
- Clark, Nigel. 2020. (Un)Earthing Civilization: Holocene Climate Crisis, City-State Origins and the Birth of Writing. *Humanities* 9: 1.
- Coombs, David Sweeney, and Danielle Coriale. 2016. V21 Forum on Strategic Presentism: Introduction. *Victorian Studies* 59: 87-89.
- Davies, Jeremy. 2019. Lyric's Diurnal Course: Reading with Geology. *Mosaic* 52: 1-17.
- De Bruyn, Ben. 2020. The Great Displacement: Reading Migration Fiction at the End of the World. *Humanities* 9: 25.
- Despret, Vinciane, and Michel Meuret. 2016. Cosmoecological Sheep and the Arts of Living on a Damaged Planet. *Environmental Humanities* 8: 24-36.
- Emmett, Robert S., and David E. Nye. 2017.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Friends of the Earth. 2018. Briefing: 12 Years to Save Our Planet: The Solutions to the Climate Crisis. Available online: https://cdn.friendsoftheearth.uk/sites/default/files/downloads/LG%20briefing%2012%20years%20to%20save%20our%20planet%20-%20the%20solutions%20to%20the%20climate%20crisis%20FINAL_2.pdf (accessed on 31 July 2020).
- Garrard, Greg. 2020. Never too soon, always too late: Reflections on climate temporality. *WIREs Climate Change* 11: e605.
- Ghosh, Amitav. 2016. *The Great Derangement: Climate Change and the Unthinkable*.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Ghosh, Amitav. 2019. *Gun Island*. London: John Murray.
- Gordon, Timothy AC, Andrew N. Radford, and Stephen D. Simpson. 2019. Grieving Environmental Scientists Need Support. *Science* 366: 193.
- Head, Lesley, and Theresa Harada. 2017. Keeping the Heart a Long Way from the Brain: The Emotional Labour of Climate Scientists. *Emotion, Space and Society* 24: 34-41.
- Holm, Poul, and Ruth Brennan. 2018. Humanities for the Environment 2018 Report—Ways to Here, Ways Forward. *Humanities* 7: 3.
- Hulme, Mike. 2020. Is it too late (to stop dangerous climate change)? An editorial. *WIREs Climate Change* 11: e619.
- Hunt, Lynn. 2002. Against Presentism. *Perspectives on History* 40. Available online: <https://www.historians.org/publications-and-directories/perspectives-on-history/may-2002/against-presentism> (accessed on 4 August 2020).
- Jamieson, Dale. 2014. *Reason in a Dark Ti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itch, Sally. 2017. How Can Humanities Promote Progress in the Environmental Sciences? *Humanities* 6: 76.
- Langton, Marcia. 2018. *Welcome to Country: A Travel Guide to Indigenous Australia*. Melbourne: Hardie Grant Travel.
- Liebenberg, Louis. 1990. *The Art of Tracking: The Origin of Science*. Claremont: D. Philip.
- Little, Gavin. 2017. Connecting Environmental Humanities: Develop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ve Method. *Humanities* 6: 91.
- McBride, Glen. 2014. Storytelling, Behavior Planning, and Language Evolution in Context. *Frontiers in Psychology* 5: 1-11.
- Oomen, Jeroen. 2019. Anthropocentric Limitations to Climate Engineering. *Humanities* 8: 186.
- Pasek, Anne. 2019. Mediating Climate, Mediating Scale. *Humanities* 8: 159.
- Portus, Rosamund, and Claire McGinn. 2019. Bees, Extinction and Ambient Soundscapes: An Exploratory Environmental Communication Workshop. *Humanities* 8: 153.
- Robin, Libby. 2018. Environmental humanities and climate change: Understanding humans geologically and other life forms ethically. *WIREs Climate Change* 9: e499.
- Steffen, Will, Regina Angelina Sanderson, Peter D. Tyson, Jill Jäger, Pamela A. Matson, Berrien Moore III, Frank Oldfield, Katherine Richardson, Hans-Joachim Schellnhuber, Billie Turner II, and et al. 2004. *Global Change and the Earth System: A Planet under Pressure*. Stockholm: IGBP Secretariat.
- Sultzbach, Kelly. 2019. How can scholarly work be meaningful in an era of lost causes? *Green Letters* 23: 19-38.
- Szerszynski, Bronislaw. 2016. Out of the Metazoic? Animals as a Transitional Form in Planetary Evolution. *In Thinking about Animals in the Age of the Anthropocene*. Edited by Morten Tønnessen, Silver Rattasepp and Kristin

- Amstrong Oma. Lexington: Lexington Books, pp. 163-79.
- Vivieros de Castro, Eduardo. 2004. Exchanging Perspectives: The Transformation of Objects into Subjects in Amerindian Ontologies. *Common Knowledge* 10: 463-84.
- Whyte, Kyle. 2020. Too late for indigenous climate justice: Ecological and relational tipping points. *WIREs Climate Change* 11: e603.
- Wood, Gillen D'Arcy. 2019. Climate Delusion: Hurricane Sandy, Sea Level Rise, and 1840s Catastrophism. *Humanities* 8: 131.
- Yusoff, Kathryn. 2018. *A Billion Black Anthropocenes in Non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